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 매개역할

윤종승*

본 연구는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며 3~7세 자녀를 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조망수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와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낮춤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간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버지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과 부부관계라는 가족 내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조망수용 능력 향상과 부부갈등 완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어머니, 아버지, 조망수용, 양육참여, 부부갈등

논문 투고일 : 2026. 04. 30. 최종심사일 : 2026. 06. 18. 게재확정일 : 2026. 06. 24.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Corresponding author : Jong-Seung Yu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I. 서론

최근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참여 수준은 여전히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양육이 주로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실제 양육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승희, 2025; 이은수, 2025). 또한 직장 내 업무 부담과 양육참여를 위한 조퇴 및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양육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희경, 2004; 이연승·최진령·김현정, 2017). 더불어 배우자의 협력이 부족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 양육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영환, 2008),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개인의 의지나 태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가정 내 역할 구조,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은 부모 중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이다(Belsky, 1984; Feinberg, 2003).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 패턴은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owen, 1978). 즉, 개인의 행동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가족 내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 간 관계는 양육과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하위체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가족 내 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계적 맥락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이 주목된다. 조망수용은 개인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과 배우자의 관점을 구분하고, 상대

방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려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조망수용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막연히 공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맥락과 입장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사고와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인지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계적 갈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의의를 지닌다. 즉, 조망수용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상호작용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백향기·이재영, 2020). 또한 이러한 특성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하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성한·김완일, 2016).

특히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이 여전히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조망수용에 초점을 둔다.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 양육 분담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배우자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부부 간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관계적 행동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는 일상적인 양육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 기회를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장과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는 부부 간 상호작용의 질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격려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Schoppe-Sullivan et al., 2008). 또한, 어머니의 게이트 클로징(gate closing) 행동은 이후 아버지의 양육의 질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ltenburger et al., 2018), 이는 어머니의 통제적·배제적 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는 관계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와 갈등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계의 질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원혜숙, 2022; 임화정·도미향, 2025). 실제로 부부갈등은 외적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심리적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김진순·오윤선, 2023). 이는 단순한 구조적 제약만으로는 부부관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해석 과정이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elsky, 1984). 특히 부부관계는 일상적 상호작용이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정서에 대한 해석 방식은 갈등의 발생과 심화, 나아가 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능력은 부부 간 상호작용의 질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인지적 자원이며, 부부갈등의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권윤아·김득성, 2011), 조망수용은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도 확인되었다(한혜영·현명호, 2006). 또한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부부갈등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현·홍혜영, 2025). 따라서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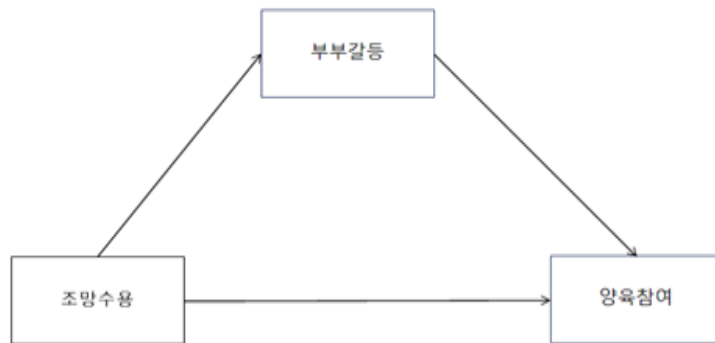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부부갈등은 부모의 양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개인의 양육의지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참여의 기회와 역할 수행의 기준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부부갈등의 영향을 보다 민감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양육의 질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나·박애리, 2016; 이형실, 2016). 또한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아버지가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혜련, 2026; 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6). 나아가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우울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형실, 201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갈등은 객관적인 갈등 사건 자체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갈등 상황에서도 부부는 서로 다른 수준으로 갈등을 지각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가족 내 상호작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및 가족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을 활용하여 양육 및 가족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문혜련, 2026; 연은모, 20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조망수용과 부부관계, 또는 부부갈등과 양육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거나 아버지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양육참여를 설명해 왔다. 또한 조망수용은 주로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부부적응 등 부부관계 변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 또는 관계적 자원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과 부부관계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어머니의 조망수용을 선행적 인지특성으로 설정하여 부부갈등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가족 내 관계적 맥락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부부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계에서 부부갈등 매개 효과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계 거주하며 3~7세 자녀를 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300명이었으며, 연구 대상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임의표집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의 특성상 이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고,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완료한 경우에만 설문 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수된 300부 전체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300)

	변수	N(%)
어머니 연령	20~29세 이하	48(16%)
	30~39세 이하	204(68%)
	40~49세 이하	48(16%)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33(11%)
	전문대졸이상	267(89%)
취업여부	전업주부	117(39%)
	시간제 근무	54(18%)
	전일제 근무	109(36.3%)
	기타	20(6.7%)
아버지 연령	20~29세 이하	33(11%)
	30~39세 이하	158(52.7%)
	40~49세 이하	109(36.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이하	30(10%)
	전문대졸이상	270(90%)
아버지 1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35(11.7%)
	40시간 이상~49시간 이하	113(37.7%)
	50시간 이상~59시간 이하	100(33.3%)

	60시간 이상	52(17.3%)
결혼 기간	3년 미만	31(10.3%)
	3년 이상~5년 이하	78(26%)
	6년 이상~10년 이하	115(38.3%)
	11년 이상~14년 이하	61(20.3%)
	15년 이상	15(5%)
첫째 자녀 연령	3세	54(18%)
	4세	85(28.3%)
	5세	71(23.7%)
	6세	62(20.7%)
	7세	28(9.3%)
자녀 수	1명	143(47.7%)
	2명	130(43.3%)
	3명	27(9%)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하	32(6.6%)
	301 이상~400만원 이하	75(15.5%)
	401 이상~500만원 이하	83(17.2%)
	501 이상~600만원 이하	64(13.3%)
	601만원 이상	46(9.5%)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조망수용

어머니의 조망수용을 확인하기 위해 Long과 Andrews(1990)가 개발한 부부 조망수용 척도(SDPT: The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를 한혜영(2004)이 변안한 ‘SPT(Self Perspective-Taking)’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어머니의 조망수용 척도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망수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나는 배우자의 문제를 잘 이해한다.’,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잠시 동안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한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96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홍성례(1995)가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HFRPS(Husband's Family Role Performance Scale)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767으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확인하기 위해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rmburg(2001)가 결혼문제예방 및 결혼 생활향상 프로그램을 위하여 개발된 도구를 기초로, 정현숙(200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부갈등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 간 갈등 수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 간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7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표준편차, 평균,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Hayes(2022)의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고,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테스트(Bootstrapping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최지선·박성연·전춘애, 2009; 박진옥·이광동, 2014; 한혜영, 2004), 어머니 취업여부, 아버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소득, 첫째 자녀 연령, 자녀 수, 결혼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망수용, 양육참여, 부부갈등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

(N=300)			
변인	1	2	3
1. 어머니의 조망수용	-		
2. 부부갈등	-.284***	-	
3. 아버지의 양육참여	.354***	-.333***	-
<i>M</i>	3.938	2.487	4.002
<i>SD</i>	.4568	.5776	.5026
최소값-최대값	3-5	1-4	3-5
가능점수범위	1-5	1-5	1-5
왜도	.125	.138	-.036
첨도	-.942	-.110	-.804

*** $p < .001$

2. 조망수용, 양육참여 관계에서 부부갈등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정적($B = .387,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부부갈등을 부정적($B = -.360,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정적($B = .310, p < .001$)으로 부부갈등은 부정적($B = -.213, p < .001$)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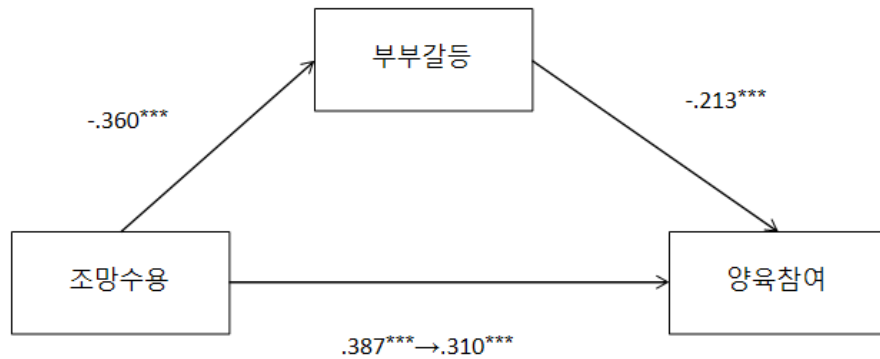
<표 3> 어머니의 조망수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계에서 부부갈등 매개효과

($N=300$)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LLCI$	$ULCI$	F	R^2
어머니의 조망수용	아버지의 양육참여	.387	.060	.352	6.426***	.268	.505		
통제 변인	어머니 취업여부	.077	.027	.153	2.836**	.023	.130	7.610	.154
	아버지 주당 평균근무시간	.023	.030	.041	.753	-.037	.082		
	월 평균소득	.015	.022	.037	.684	-.029	.059		
	첫째 자녀 연령	-.016	.022	-.040	-.736	-.059	.027		
	자녀 수	-.014	.042	-.018	-.338	-.097	.068		
	결혼기간	-.004	.027	-.009	-.164	-.057	.048		
	어머니 조망수용	부부갈등	-.360	.071	-.285	-5.040***	-.501		
통제 변인	어머니 취업여부	-.039	.032	-.069	-1.231	-.102	.024	4.513	.098
	아버지 주당 평균근무시간	.020	.036	.032	.566	-.050	.091		
	월 평균소득	-.029	.026	-.062	-1.103	-.081	.023		
	첫째 자녀 연령	.023	.026	.050	.897	-.028	.075		
	자녀 수	-.051	.050	-.058	-1.033	-.149	.047		
	결혼기간	.024	.032	.042	.749	-.039	.086		

통제 변인	어머니의 조망수용	아버지의	.310	.061	.282	5.098***	.190	.430	9.579	.208
	부부갈등	양육참여	-.213	.048	-.245	-4.462***	-.307	-.119		
	어머니 취업여부		.068	.026	.136	2.598*	.017	.120		
	아버지 주당 평균근무시간		.027	.029	.049	.924	-.031	.085		
	월 평균소득		.009	.022	.022	.417	-.033	.051		
	첫째 자녀 연령		-.011	.021	-.027	-.524	-.053	.031		
	자녀 수		-.025	.041	-.032	-.617	-.105	.055		
	결혼기간		.001	.026	.001	.026	-.050	.05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Bootstrapping을 활용해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효과, $B = .387$, 95% CI = .268 ~ .505). 또한 부부갈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직접효과, $B = .310$, 95% CI = .190 ~ .430).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부부갈등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간접효과, $B = .077$, 95% CI = .037 ~ .126). 따라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B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387	.060	.268	.505
직접효과	.310	.061	.190	.430
간접효과	.077	.023	.037	.12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아버지의 주당 근무시간, 월 평균소득, 첫째 자녀 연령, 자녀 수, 결혼기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만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통제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조망수용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같은 인지적 관계 이해 능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김은아·김종훈, 2022), 아버지의 인지적 공감이 높을수록 공동양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변혜원·김종훈·이미나, 2018)와 맥을 같이한다. 조망수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입장과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는 인지적·정서적 능력이 높으며, 정서적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백향기·이재영, 2020). 또한 조망수용이 높은 어머니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배우자의 의도와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한혜영·현명호, 2006), 이러한 특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배우자의 행동과 의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부부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적 맥락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

화하며, 양육 참여에 대한 허용과 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아버지의 정서와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양육행동을 지지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기회는 보다 개방적으로 확장되며, 이는 실제 참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양육참여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부부 간 관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상호작용적 행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망수용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배우자의 입장과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이러한 관계의 안정성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김진순·오윤선, 2023)와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결과(권효진·김현수, 2025)와 맥을 같이한다.

부부갈등은 부부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와 갈등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부부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성영실·이성주, 2021; 하민경, 2019). 부부갈등이 높아질수록 부모는 관계 속에서 우울과 정서적 소모를 경험하게 되고(김사라형선, 2010), 이는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을 실행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된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분위기와 상호작용 속에서 촉진되거나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부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망수용은 타인의 입장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인지적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배우자의 의도와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부정적 정서의 확산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부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문자·전영주·김수지·정수빈, 2010). 이는 조망수용이 부부 상호작용의 질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망수용이 높은 어머니는 부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정서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관계적 여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조망수용은 부부갈등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조망수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개인의 특성이나 의지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 상호작용이라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행동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조망수용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자원이 부부갈등이라는 관계적 기제를 통해 양육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양육참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 중심 접근을 넘어 관계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은 주로 아버지 개인의 양육역량이나 부모역할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부부갈등과 같은 관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망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갈등 예방 및 조정 전략을 포함한 가족중심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의 상호이해와 협력적 양육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어머니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 역시 어머니의 지각에 기반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의 행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 양측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조망수용, 부부갈등, 양육참여 간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이들 간

의 인과적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가정으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가족 유형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망수용과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은 결혼 이후에 형성되기보다 예비부모 단계에서부터 준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조망수용과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다양한 개인적·관계적·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친밀감, 공동양육(co-parenting), 결혼만족도 등 다양한 관계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보다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4).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한국 부모교육학회**, 1(1), 87-105.
- 권윤아·김득성(2011). 부부갈등 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9(7), 67-80.
- 권효진·김현수(2025).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유아의 사회성 간 매개요인 연구: 부부갈등과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0(3), 1-16.
- 김사라형선(2010). 부부갈등과 우울, 불안의 관계에서 용서의 중재효과. **가정과학의질연구**, 28(4), 55-66.
- 김유나·박애리(2016). 맞벌이 가구와 남성홀벌이 가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부부관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51-76. <https://doi.org/10.21321/jfr.21.1.51>
- 김은아·김중훈(2022).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23(11), 413-420. <https://doi.org/10.5762/KAIS.2022.23.11.413>
- 김진순·오윤선(2023). 기독교 중년부부의 영적·심리적 안녕감, 조망수용, 부부갈등 대처행동과 결혼 안정성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31(1), 37-72.
- 문혜련(2026).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3(1), 23-42.
- 박소현·홍혜영(2025). 결혼 초기 부부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콘텐츠학회**, 25(3), 523-536. <https://doi.org/10.5392/JKCA.2025.25.03.523>
- 박진옥·이광동(2014).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 내 역할유형 및 젠더의식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26(1), 205-236.
- 백향기·이재영(2020). 유아교사의 조망수용능력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청학회**, 13(4), 103-121.
- 변혜원·김중훈·이미나(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공감능력이 공동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3(2), 141-160. <https://doi.org/10.13049/kfwa.2018.23.2.1>
- 성영실·이성주(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3(1), 33-55. <https://doi.org/10.15409/riece.2021.23.1.2>
- 손승희(2025). 0세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양육 분담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 분담 불균형의 조절효과. **부모교육연구**, 22(3), 133-153.
- 연은모(2026).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행복감 간 관계에서 성격 5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의 적용. **한국산학기술학회**, 27(5), 216-229. <https://doi.org/10.5762/KAIS.2026.27.5.216>

-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 태도 간 관계: APIM 모형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28.
- 원혜숙(2022). 아동의 반항행동과 부부갈등, 온정적양육, 불안의 구조적 관계. 상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연승·최진령·김현정(2017). 부산광역시 영유아 아버지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 실태 그리고 어려움.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86.
- 이영환(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한국아동 권리학회**, 12(2), 189-210.
- 임화정·도미향(2025).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27-46. <https://doi.org/10.61400/JPE.2025.22.1.27>
- 이은수(2025). 남성이 아버지 역할에서 경험하는 자녀 양육 어려움과 부모교육 요구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4(6), 233-248.
- 이형실(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 **놀이 치료연구**, 20(3), 17-28.
- 이형실(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갈등과 양육행동간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중소기업융합학회**, 7(6), 237-244.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6.237>
- 정문자·전영주·김수지·정수빈(2010).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갈등 주제,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 및 조망수용. **상담학연구**, 11(3), 1305-1324. <https://doi.org/10.15703/kjc.11.3.201009.1305>
- 정성환·김완일(2016). 재수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3(6), 355-374. <https://doi.org/10.21509/KJYS.2016.06.23.6.355>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최지선·박성연·전춘애(2009).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일상생활 참여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학회**, 27(5), 167-181.
- 하민경(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이 가족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4), 61-85.
- 한혜영(2004).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영·현명호(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 25(4), 935-952.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tenburger, L. E., Schoppe-Sullivan, S. J., & Kamp Dush, C. M. (2018).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gatekeeping and fathers'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7), 2678 - 2689. <https://doi.org/10.1007/s10826-018-1107-3>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 - 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 - 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ford Press.
- Long, E. C., & Andrews, D. W.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 - 131. <https://doi.org/10.1037/0022-3514.59.1.126>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Rev. ed.). Jossey-Bass.
- Schoppe-Sullivan, S. J., Brown, G. L., Cannon, E. A., Mangelsdorf, S. C., & Sokolowski, M. S. (2008). Maternal gatekeeping, coparenting quality, and father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389 - 398. <https://doi.org/10.1037/0893-3200.22.3.389>

Abstract

The Effects of Mothers' Perspective-Taking o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Yun, Jong-Seu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others' perspective-taking o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in this relationship.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0 mothers raising children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the PROCESS Macro.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igher levels of mothers' perspective-taking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econd, marital conflic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spective-taking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thers' perspective-taking not only directly promotes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but also indirectly enhances it by reducing marital conflict.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underst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within the family relational context, including mother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and family support programs aimed at promoting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Keywords: mother, father, perspective-taking, parenting involvement, marital conflict

* Ph.D. in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